

광주 4차유행 '10명 중 6명 20~40대'...자녀까지 감염 현상

수능 앞두고 학교 폐쇄·전수검사·온라인 전환 불편 “연말 모임·행사·다중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당부

최근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유행은 1·2·3차 때와 다르게 활동량이 많은 20~40대이며 어린 자녀에게 까지 전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다음달 3일 2021대입수험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어 '모임 최소화,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6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47명으로 이중 3명이 숨졌으며 546명 격리해제, 98명이 격

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4차 유행이 시작된 11월 들어 광주에서는 12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자녀가 어리고 활동량이 많은 20~40대여서 '급속확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5명 중 20대는 35명, 30대 22명, 40대 21명으로 11월 확진자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자녀까지 감염돼 유·초·중·고 학생은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50대 이상은 35명이다.

자녀까지 감염됨에 따라 수능을 앞두고 해당 학교는 폐쇄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

다. 또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이고 전파력도 강해 전수검사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11월들어 광주에서는 남구 호프집 11명, 광주교도소 6명, 유흥주점 5명, 전남대병원 70여명(타지역 포함), 중학교 5명 등 집단감염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확한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동선을 토대로 전수검사가 이뤄져 지금까지 21만6101건의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됐다.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지난 2월 해외여행을 통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종교시설과 방문판매, 요양원 중심으로 집단감염 현상이 있었으며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방역당국은 “다음달 3일이면 수능



26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중학교에서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다”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을 둔 부모를 비롯해 친인척 등은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생활 할 때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4차유행은 젊은층이 많은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생활 할 때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다중이 모이는 시설과 모임·행사 참석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선옥기자



병원 대기 좌석간 거리두기

전남대학교병원 대면진료가 재개된 26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입구에서 한 환자가 대기석 좌석 간격을 두고 앉아있다.

“선박 안전항로 확보”...해수부, 광양항 암초제거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7일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 제거공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양항 해역은 여천, 광양, 울촌, 하동지역의 유일한 진입항로, 10만t급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나 석유·화학제품 등 위험화물 운반선이 자주 통항하는 해역이다. 하지만 해역 우측에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출암'(떨물 때는 드러나고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

기는 바위)이 있어 지난 1988년부터 교통안전특별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해수부는 2015년에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간출암이 해양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제거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 사업은 항로상에 있는 암초를 제거해 22.5m의 항로 수심을 확보하고, 항로폭을 확장(420m→600m)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4년 2월까지 9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저소음·저진동의 최신 'OD발파공법'과 4중 공기 장막으로 소음을 저감시키는 '에어월' 등 첨단공법을 도입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8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감염원 미궁’ 나주 연쇄감염...‘특정 모임 회원발’ 확산 비상

전남367번 포함 모임 회원 4명 확진 후 접촉자 감염 확산 나주시, 특정 모임 회원 가족 57여명 전원 진단검사 예정

전남 나주(빛가람동)혁신도시 내 코로나19 연쇄 감염 첫 진원지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특정 모임 회원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확진된 A씨(전남367번·나주17번)를 포함해 총 4명이 같은 날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이후 25일까지 잇달아 양성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과 접촉 후 감염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나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A씨가 회장으로 있는 '00모임' 회원과 지난 20일 식당에서 접촉한 여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순천을 주소지로 둔 여성 1명도 확진됐다.

이 여성은 역학조사 결과 최근 업소 주인이 확진된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남388~391번 환자로 분류돼 격리병원으로 입원 조치됐다.

이 중 담당군청 직원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20일 시동생 C씨가

운영하는 빛가람동 모 식당에서 지인 부부 2명과 저녁식사를 한 이후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부동반 저녁식사 자리에는 지난 24~25일 잇따라 확진된 '00모임' 회원인 '광주 626번'을 포함해 2명의 확진자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점에서 감염 경로로 의심받는다.

반면 B씨의 시동생인 식당 주인 C씨도 A씨와 같은 '00모임' 회원이지만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00모임' 회원발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 회원 가족 57여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6일 현재까지 '00모임' 회원 관련 확진자는 A씨를 비롯해 그의 부인과 초등생 자녀 2명, 같은 모임 회원과 나주, 광주(2), 순천(1) 거주자 등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보건당국은 A씨의 초등학



생 자녀 2명이 확진되자 25일 오전에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도 이들은 26일 오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더욱 강화된 방역체제 가동에 돌입했다.

보건·간호인력 20명을 보건소 비상대응상황실 등에 긴급 배치하고 방역·전산장비 지원, 자가격리업무 1대1 전담공무원 200여명을 지정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정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